철학적 분석 11 (2005) pp.95-114.

일반화 논변과 심신 환원*

백 도 형 ‡

이 글에서는 김재권의 비환원적 물리주의 비판에 대해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제기한 반론인 일반화 논변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일반화 논변은 김재권 등의 심신 환원주의에 대한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반격 논변 정도로만 이해되었다. 그런 정도의 이해에만 머물 경우, 그 논변에 대한 관심은 그 논변이 비환원적 물리주의와 심신 환원주의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국한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일반화 논변을 제대로 검토해 본다면, 그 논변은 단순히 양 진영의 승부의 문제를 넘어서 그것을 제기한 비환원적 물리주의 진영의 철학자들조차도 전혀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를 심신 문제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쩌면 심신 문제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심리철학의 구도를 재편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 지도 모른다.

주 제 심리철학, 형이상학
주요어 일반화 논변, 심신 환원, 비환원적 물리주의, 제거주의, 심신 유명론

1. 머 리 말

이 글에서는 김재권의 비환원적 물리주의 비판에 대해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제기한 반론인 일반화 논변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일반화 논변은 김재권 등의 심신 환원주의에 대한 비

* 접수완료: 2005. 5. 23. / 심사 및 수정완료: 2005. 6. 17.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KRF-2002-074-AS1039)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환원적 물리주의의 반격 논변 정도로만 이해되었다. 그런 정도의 이해에만 머물 경우, 그 논변에 대한 관심은 그 논변이 비환원적 물리주의와 심신 환원주의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국한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일반화 논변을 제대로 검토해 본다면, 그 논변은 단순히 양 진영의 승부의 문제를 넘어서 그것을 제기한 비환원적 물리주의 진영의 철학자들조차도 전혀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를 심신 문제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쩌면 심신 문제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심리철학의 구도를 재편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는 그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2-3장에서는 일반화 논변은 그것이 겨냥하고 있는 심신 환원주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기한 심신 비환원주의자들에게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우선 일반화 논변이 겨냥하고 있는 심신 환원주의에 대해 이 논변이 가하고 있는 비판과 그 효과를 살펴 보겠다. 하지만 3장에서는 일반화 논변이 심신 환원주의 뿐만 아니라 이 논변을 제기한 쪽인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입장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도 동시에 사용될 수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3장까지의 일반화 논변의 검토결과 이 논변은 심리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입장인 심신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양자에 모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4-5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이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데카르트식 실체 2원론을 제외하면 심신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만이 남아있음을 자연스럽게 도출한다. 그 두 입장이 바로 제거주의와 심신 유명론이다. 이 두 입장이 일반화 논변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지 살펴 보고, 특별히 최근 심리철학의 흐름에서 일반화 논변이 갖는 의미를 더듬어 본다. 아울러 심신 유명론이 일반화 논변에 대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살펴 본다.

나는 예전의 여러 논문에서 심신 문제 내지 정신 인과 문제에 보편자로서의 속성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심리철학 이론들

이 그 점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금의 심신 문제가 미궁 속에 빠져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편자로서의 속성을 정면으로 문제삼을 때 심신 문제에 관한 논의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서술하였다.[1] 이번 글에서는 보편자로서의 속성의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일반화 논변을 통해 드러나는 존재계층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지만 이 글의 논의 결과는 지금까지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심신 문제에 관한 논의구도가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사한 주장이지만 보편자로서의 속성이 아닌 다른 각도의 과정을 통해 접근해 보겠다.

2. 일반화 논변과 심신 환원주의

1970년대 이후로 심리철학계의 주류 입장이었던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해 김재권은 1989년에 발표된 「비환원적 유물론의 신화」[2]를 비롯한 몇몇 중요한 논문들에서 정신 인과에 개입하는 정신 속성이 인과적 힘을 갖지 못한 부수현상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비판을 가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비환원적 물리주의 진영에서는 일반화 논변을 제기하였다. 일반화 논변에 따르면, 만일 김재권의 지적대로 정신 속성이 부수현상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정신 인과 뿐만 아니라 모든 거시 인과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3] 즉 정신 속성 뿐만 아니라 모든 거시 속성이 부수현상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4]

일반화 논변은 심신 관계가 다음과 같은 존재자의 계층들 중의 일부에 불과함을 드러내준다. 다음 중 보다 큰 번호가 나타내는 상위의 존재

1) 졸고(2004B)와 (1995A), (1995B), (1995C), (2001) 등 여러 논문들이 있다.
2) Kim(1989)
3) Baker(1993), p. 87. 또 같은 논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Burge(1993), Van Gulick(1993)도 보라.
4) Van Gulick(1993), p. 249.

계는 하위의 존재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미시 물리적 존재자
② 일상 사물(거시 물리적 존재자)
③ 생명체
④ 개인으로서의 인간(정신, 이성)
⑤ 사회

이들 중 심신 관계는 ①과 ④의 관계이다. 일반화 논변은 결국 이러한 존재계층들 중 한 가지 관계에 불과한 심신 관계에 부수현상론 시비가 제기된다면, 부수현상론 시비는 다른 나머지 존재계층들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경우 일반화 논변에 따른다면 결국 물리주의를 옹호하는 한, 가장 기초 존재자인 ①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거시 계층의 존재들을 모두 부정하는 제거주의를 취하든지, 아니면 김재권처럼 환원주의를 옹호하려면 ② 이하의 모든 거시 존재계층들이 모두 ①로 환원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신 환원의 문제만도 옹호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외의 다른 거시 존재층도 모두 미시 물리적 존재자로 환원됨을 보인다는 것은 환원주의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설사 일부의 상위 속성이 하위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환원주의자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일부의 환원 가능성과 양립할 수 있지만[5], 환원주의는 반환원적 사례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성립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환원주의는 순수한 물리주의의 논제에 더하여 특수과학과 물리과학 간의 환원까지도 주장하는 더 강한 물리주의이기 때문에, 환원주의

5) Pereboom & Kornblith (1991), pp. 140-1.

가 비환원적 물리주의보다 부담이 더 큰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그 동안 학문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심신 문제 이외에도 이런 존재계층들 간의 환원과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 간의 불가통약성을 논의하는 과학철학의 문제는 ①과 ② 간의 관계에 관한 일종의 비환원주의이다. 반면에 분자 생물학은 ③이 ②로 환원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6] 또 개체론과 전체론의 문제는 ④와 ⑤ 간에 논의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사회생물학은 ③과 ⑤ 간의 문제이다.[7] 위에서 제시한 ①-⑤ 이외에도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는 수, 도덕, 가치, 보편자 등 추상적인 존재자의 실재를 주장하는 입장(일종의 플라톤주의)도 있다. 예컨대 그런 맥락에서 윤리학에서 논의되는 '도덕 실재론(moral realism)'이라는 입장도 있다. 또 요즘 구미 윤리학계에서 문제시하는 동물윤리학은 윤리학적인 시각에서 ③과 ④의 관계를 살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모두 환원주의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논의들이다. 물론 환원주의란 반드시 심신 환원주의만 있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제시된 존재계층들중 어느 두 계층 들 간에도 주장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주장되는 그 두 계층들 이외에 다른 계층들 간에도 연속적인 환원을 주장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심리철학에서 문제되는 심신 환원주의는 여느 환원주의와는 다르다. 그것은 심신 환원을 통해 강한 유물론 내지 물리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의 분석철학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심신 환원주의는 논리실증주의의 과학주의 이념을 계승하는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심신 환원주의는 존재론적 1원론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1원론을 지향하고 있는 통일과학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신 환원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①과 ④의 두 존재계

6) 물론 잘 알려진 대로 이에 대해 생물학의 철학에는 생물학의 물리학 내지 화학에로의 환원을 부정하는 입장들도 상당히 있다.

7) 나는 백도형(1999)에서 사회생물학의 형이상학적 한계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층 간만의 환원이 아니다. 그것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물리주의와 같은 존재론적 1원론, 통일과학의 이념과 같은 방법론적 1원론을 옹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작금의 심리철학의 맥락에서 물리주의 아닌 심신 환원주의를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심신 환원주의가 지향하는 물리주의와 통일과학의 이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④의 인간 정신 영역뿐만 아니라 ②, ③, ⑤ 등 나머지 모든 존재계층들도 기초 존재자인 미시물리 존재자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심신 환원주의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셈이다. ①과 ④ 사이에만 환원을 인정할 경우, 물리주의도 통일과학의 이념도 뒷받침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리주의와 통일과학의 이념을 옹호하려면 단순히 심신 환원뿐 아니라 모든 존재계층들도 미시물리 존재자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즉 ④ 뿐만 아니라 여타의 존재계층들인 ②, ③, ⑤ 등도 ①로 환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심신 환원주의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주장인 것이다. 일반화 논변으로 심신 관계를 여러 존재계층들 간의 관계로 확장하는 것은 심신 환원주의에게 극복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온다.[8)]

3. 일반화 논변과 비환원적 물리주의

그런데 일반화 논변의 부담은 심신 환원주의자들에게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에게도 그 논변은 결코 희소식이 아니다. 일반화 논변이 환원주의에 주는 부담은 일견 정신적인 것의 자율성을 옹호하려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다. 하지

8) 심신 환원주의를 옹호하는 김재권은 일반화 논변에 대답하기 위해 속성의 계층에 있어서 '위(level)'와 '차(order)'를 구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능적 환원주의를 옹호한다. 김재권의 기능적 환원주의에 대해서는 Kim(1998)의 3-4장, 그리고 졸고(2000), (2004A) 참조. 하지만 나는 이러한 김재권의 기능적 환원주의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졸고(2000)의 3장을 참조.

만 결코 그렇지 않다.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정신적인 것, 즉 ④의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해 보자. 하지만 그 자율성은 나머지 존재계층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나머지 존재계층들을 애써 외면한 채 ④의 자율성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각 존재계층은 모두 그 계층에 고유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속성들은 결코 그 하위 계층들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그 계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등장하는 '창발 속성'이다. 그렇게 '창발하는' 상위 속성들의 대부분이 하위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환원주의의 주장임은 물론이다.

하여간 이렇듯 하위계층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러 존재계층들을 염두에 둘 때, 비환원주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심리 영역의 존재계층만을 인정하는 선에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상위 계층들을 인정치 않으면서 심리 계층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과연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이 제시할 수 있을까? 심리 계층뿐 아니라 모든 다른 계층의 속성들도 하위 속성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환원되지 않으면서 '창발되어' 등장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심신 문제만 거론하고 다른 존재계층들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애써 외면한다고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여러 계층들의 존재를 모두 옹호한다면, 마치 한 세기 전에 분석철학이 태동하던 시절 있었던 마이농의 스캔들처럼 존재계의 지나친 팽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감당하기 어려운 귀결임에 틀림없다.

일반화 논변을 제시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은 부수현상론 시비에 대해 인과와 실재에 대한 지나치게 강한 형이상학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수과학의 성공적 설명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인과의 형이상학 대신 인과적 설명을 통해 정신 인과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9] 인과의 형이상학 대신 인과적 설명을 통해 접근하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있었으며, 일반화 논변은 이러한 흐름을 계

승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10] 그러나 인과를 설명차원으로 전환시키고 형이상학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안이한 접근인 것 같다. 즉 그들은 존재적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적 다원주의를 옹호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설명적 다원주의는 각각의 존재계층에 고유한 적절한 설명이 있다는 방식으로 존재세계를 이미 구분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설명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입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실체 차원에서나 속성 차원에서나 1원론을 옹호하는 물리주의라면 그들의 인과적 설명은 곧 물리적 설명으로서 전 존재세계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이다. 하지만 비환원주의를 옹호하여 존재계층을 구분하고 그 계층에 고유한 설명을 인정한다면 그 설명은 존재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존재계층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것이다. 즉 설명방식이 구별되어야 함을 정당화할 수 있으려면 존재론적인 차별화가 정당화되어야 한다. 존재론적 차별화 없이, 굳이 설명 방식에 있어서만 차별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나는 이런 점에서 형이상학적 반성없는 설명적 다원주의는 옹호하기 어려운 안이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11]

---

9) Baker(1993), pp. 92 이하, Burge(1993), pp. 118 이하, Van Gulick(1993), pp. 245 이하 참조.

10) 이러한 흐름에 속하는 입장으로는 Hanson(1958)의 3장, 그리고 Scriven(1975) 등을 보라.

11) 이와 유사한 비판을 졸고(2002) 3-4장에서도 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비판은 일반화 논변을 제기하면서 설명적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철학자들이 대체로 실재론과 물리주의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라는 사실에서 더욱 확고해진다. (예컨대 Burge(1993), p. 116, 그리고 Baker(1993), p. 95를 보라. 반면에 Van Gulick(1993)은 물리적인 것의 배타적인 우월성과 수반을 인정치 않는 등 물리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pp. 250 이하 참조.) 물론 비환원적 물리주의 이외에도 설명적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존재론적 다원주의를 옹호하거나, 전면적인 반실재론 내지 관념론을 표방한다면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옹호하지 않고도 설명적 다원주의를 옹호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은 애초에 김재권이 배제 논변에서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아니다. 배제 논변은 사실상 비환원적 물리주의에만 해당이 된다. 물리주의를 옹호함으로써 물리 영역의

4. 심신 문제 구도의 재편

결국 일반화 논변에서 제시하는 존재계층의 확장은 심신 환원주의나 비환원주의 모두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화 논변에 관한 생각이 일리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지금까지의 심리철학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20세기 이후 심리철학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50년대 이래 최근 50여년간의 심리철학의 역사를 살펴 본다면 초창기 10여년 정도는 심신 환원주의가 가장 유력한 입장으로 생각되어 졌고 60년대 말 이후 최근의 30년간은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가장 많은 철학자들이 옹호하는 주류 입장의 지위를 차지해 왔다. 이제 일반화 논변에 대한 이 글에서의 해석은, 심리철학계의 이러한 대표적인 두 주류 입장을 온전히 옹호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점이 지금까지의 심신 문제와 심리철학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심리철학은 탐구 대상을 물리・심리의 두 영역에만 국한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방식의 역사적인 뿌리는 데카르트의 심신 2원론이다. 물론 데카르트의 2원론은 지금은 거의 아무도 그 형태 그대로 옹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방식, 즉 심신 2분법적 구도라는 개념적 전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구도 덕택에 심리철학의 논의 구조가 정초되고 자리잡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 구도가

존재가 세계의 존재에 대한 충분조건이 이미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주의를 인정한다면 미시물리 영역 이외의 상위 영역은 모두 부수현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 배제 논변의 내용이므로 물리주의와 존재론적 1원론을 아예 부정하는 위의 두 가지 입장은 배제 논변의 표적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 둘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구별되는 설명의 다원적 계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이론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에 관해서는 4-5장에서 언급하겠다.

더 이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서양철학과 과학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심신 관계 외에도 두 영역 간의 환원이 쟁점이 된 경우가 간혹 있었다. 생물학의 철학에서는 생물학과 물리학 간의, 혹은 생명 현상과 물리 현상 간의 환원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사회철학, 사회과학의 철학 분야, 혹은 사회학, 사회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개인과 사회 내지 집단 간의 환원을 다루는 문제가 개체론과 전체론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윤리학에서 문제되는 사실과 가치, 존재와 당위 간의 문제도 두 영역 간의 환원 문제로 볼 수 있다. 무어(G. E. Moore)가 자연주의 윤리설에 제기했던 '자연주의적 오류'는 가치, 당위의 문제를 존재 내지 사실의 문제로 환원시키려는 자연주의 윤리설의 환원주의를 비판하는 대목이다. 생물학적인 인간관을 바탕에 깔고 논의를 진행시키는 사회생물학이나 진화심리학은 생물학의 대상이 되는 생명 현상의 영역과 심리 영역 그리고 사회 영역 간의 환원 문제를 다루는 셈이다. 과학철학에서 최근 논의되는 불가통약성 개념도 물론 상대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여러 패러다임들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특별히 거시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는 뉴튼식의 근대 물리학과 미시 영역을 다루는 현대 물리학 간의 환원불가능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위에서 나열한 서양철학과 과학의 환원과 관련된 문제들중 상대주의 과학철학에서 불가통약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환원문제가 두 영역 간의 환원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심신 관계 이외의 나머지 존재계층들에 대한 논의들이 엄연히 존재하였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환원 문제를 다룰 때에는 두 영역 간의 환원 여부만을 문제삼는 것이 대부분의 논의였다. 이런 점은 심신 문제를 다루었던 심신 이론들도 마찬가지였다. 미시 물리 영역과 심리 영역 이외의 다른 존재 영역들은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다른 존재 영역들은 무시한 채 심신 두 영역 간의 관계로만 환원 문제를 다룬다면, 그 논의에서 소기의 결론을 얻을 수 있

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써 의미있는 존재론적인 성과가 나올 수 없다. 예컨대 심신 환원주의를 정당화한다고 해서 물리주의가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심신 간의 환원은 기껏해야 물리주의의 필요조건들 중 하나일 뿐이다. 김재권은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확고한 존재론적 위상을 갖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설사 그러한 그의 비판이 옳다고 해도, 또 거기다가 그의 심신 환원주의가 옳다는 가정을 더하더라도 나머지 모든 존재 영역이 미시물리 영역으로 환원됨을 보이지 않는 한, 물리주의를 결코 제대로 옹호할 수 없다.

따라서 심신 두 영역 이외에 모든 존재계층을 함께 고려하여 환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제는 불가피한 과제가 되며, 오히려 이것은 심리철학의 난제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모든 존재계층을 고려할 경우, 물리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환원주의도, 비환원주의도 제대로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동안의 심신 문제에 관한 논의들은 나머지 존재 영역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고, 사실상 심신 환원주의와 비환원적 물리주의 간의 논쟁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하필 왜 여러 존재계층들 중 '심신 문제'라는 ①과 ④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만이 어떻게 존재론의 유일한 문제일 수 있으며, 그 중 ④만의 자율성이 유일하게 옹호해야 할 자율성이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심신 이론들은 사실상 인간중심적인 형이상학이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형이상학을 인간중심에서 존재 세계 일반으로 확장시켜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심신 문제는 형이상학 일반의 문제로써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시야를 확대하는 것이 한 동안 속시원한 논의의 진전없이 정체되어 있는 심신 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존재 영역들을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아 심신 문제는 어떠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 우선 가장 쉽게 제

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거주의와 존재다원주의이다. 제거주의란 가장 기초적인 영역인 미시물리 영역의 존재만을 인정한 채, 다른 계층들 간의 환원을 부정하는 강한 물리주의의 입장이다. 앞에서 심신 환원주의를 검토하면서 환원주의가 비환원주의보다 정당화의 부담이 더 무거운 입장임을 밝혔다. 제거주의란 사실상 모든 영역 간의 환원을 부정하면서도 옹호할 수 있는 물리주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입장임에 틀림없다. 제거주의는 어차피 가장 기초적인 존재자인 미시물리 존재자 이외에 다른 것들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신 문제를 논의하는 데 사용되었던 제거주의의 입장이 ④번, 즉 인간정신 이외의 나머지 거시 존재자들에게도 쉽게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화 논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화 논변은 미시물리 계층 이외의 나머지 모든 거시 계층들을 한꺼번에 제거해 줄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 줌으로써, 제거주의에 대한 다른 라이벌 입장들을 모두 한꺼번에 붕괴시켜 버리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다만 문제는 많은 철학자들이 논하듯이 제거주의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영역들, 그 동안 여러 특수 과학 분야에서 다루었던 영역들의 존재를 깡그리 부정하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손쉽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구성할 수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크게 위배됨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제거주의는 일반화 논변의 문제와 상관없이 다른 의미에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 때문에 상식을 옹호하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제거주의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리철학에서 상식으로 여겨졌던, 그리고 가장 유망한 선택지들로 여겨졌던 환원주의와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재고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제거주의가 비록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상식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 입장이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현재의 통념 이외에 다른 반박을 제시할 수 없다면 이제는 그렇게 무시할 수만은 없는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과학사의 사례들에서

에테르나 플로지스톤 등 예전에 인정했던 존재자들을 이제 더 이상 인정치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등, 제거주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존재 영역이 단순화됨으로써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제거주의는 가능한 선택지의 하나로 인정하기로 하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존재다원주의이다. 이것도 제거주의처럼 존재 영역들 간의 환원을 부정하는데, 제거주의가 기초 존재 영역인 미시물리 영역의 실재만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존재다원주의는 하위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영역의 실재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 본 비환원주의와 다른 점은 앞에서 다룬 비환원주의가 비환원적 물리주의로서 실체차원의 존재론으로는 1원론을 지향함에 반해, 존재다원주의는 물리주의라는 1원론 자체를 부정하고 모든 영역의 존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다원주의이다. 이런 입장은 어차피 물리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권의 배제 논변, 수반 논변 등과 같은 비판을 벗어날 수 있다. 물리주의를 옹호하지 않는 만큼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여러 존재계층에 의한 인과의 과잉결정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다원주의 역시 앞 장에서 비환원주의에 적용되었던 과도한 존재팽창의 부담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제거주의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지인가? 다원적인 존재현상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존재론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것일까?

5. 심신 유명론 : 실체-속성 범주의 재고

나는 이 대목에서 예전부터 여러 논문에서 제시했던 심신 유명론(psychophysical nominalism)이야 말로 제거주의의 반직관성, 그리고 존

재다원주의의 형이상학적 부담은 피하면서도 다원적인 존재 현상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존재론의 유망한 형태라고 제안한다. 정신 인과의 문제를 포함하는 상위 인과 혹은 하향 인과(downward causation)의 문제는 속성 2원론 등 비환원주의에서 각 상위 계층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창발 속성'이 존재론적인 의미로 실재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심신 유명론은 이러한 속성 실재론에서 '속성 실재'의 거품을 빼고 '속성'이 언어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한다. 형이상학의 유서깊은 범주인 '속성'을 감히(?) 이렇게 재고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첫째, 속성 2원론등 종래의 비환원주의는 속성 실재론을 옹호하였고,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의 술어는 속성에 대응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의 실재론, 그리고 그 때의 실재론이 전제하고 있는 진리대응설까지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더라도, 거기에다가 이 때의 '속성'이 상위 속성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속성 실재론이 존재계층에 대한 실재론으로 확장되어 이해된다면, 앞 장에서 살펴 본 존재론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12] 이러한 점에 주목한다면 속성의 실재론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최근의 과학철학과 인식론의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는 관찰의 이론의존성 논제는 '속성'의 경우에도 이론에 의존되어 있는 술어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런 생각으로 이루어진 심신 유명론에서는 앞 장에서 줄곧 형이상학적 문제가 제기되었던 존재계층은 이제 언어계층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심신 유명론은 존재론적으로는 복수의 존재계층의 실재를 옹호할 필요가 없는 1원론이면서도 언어 차원에서는 다원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12) Heil(2003)중 특히 1-7장 참조. 존 하일은 이러한 생각에서 일종의 유명론인 추상적 개별자론(trope theory)을 옹호한다. 하지만 같은 유명론이더라도 추상적 개별자론에 대해서는 나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졸고(2005) Ⅲ장 참조.

그러나 그렇다면 언어 다원주의로서의 심신 유명론은 앞 장에서 비판하였던 설명적 다원주의가 되어 버리는 셈이 아닌가?[13] 하지만 종래의 설명적 다원주의와 심신 유명론이 다른 것은, 전자는 그냥 현재까지의 설명 관행을 실용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만, 후자인 심신 유명론은 형이상학적인 여러 고려 사항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의 초점은 일반화 논변에서 제기되는 존재계층들이 심신 문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축들을 더듬어 보는 것이지 심신 유명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며(물론 지금까지 본 대로 존재계층을 고려하는 것은 심신 유명론을 낳게 하는 좋은 문제의식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심신 유명론의 형이상학적 뒷받침에 관해서는 다른 글들에서 시도하였으므로[14] 여기에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우선 조금 전에 언급하였듯이 각 존재계층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속성들을 존재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면 앞 장에서 본대로 존재계의 지나친 팽창을 야기하게 되고, 강한 물리주의의 진영으로부터는 배제 논변 등과 같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심신 유명론은 모든 존재계층(심지어는 가장 기초적인 미시물리 계층까지

---

13) 『철학적 분석』의 심사위원 한 분은 심신 유명론이 언어관념론과 유사하기 때문에 도덕 주체로서의 인간의 지위에 문제가 생기며,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칸트 등의 전통 윤리설을 지양하는 대부분의 현대 윤리설, 그리고 경험론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주의적 윤리설 등에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로 심신 유명론의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여러 현대 윤리설들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전통적인 인간관이 아닌 새로운 인간관을 지향하기 때문이며, 그런 점에서는 물리주의가 주류인 최근의 심신 이론들도, 또 심신 유명론도 마찬가지이다.

또 최근의 실재론 논쟁은 실재론 대 반실재론(또는 관념론) 진영으로 양분되어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이분법보다는 무엇을 실재하는 것으로 보느냐가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심신 유명론은 존재자를 실체나 보편자로서의 속성이라는 전통 범주로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4차원 개별자 실재론을 옹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다른 글[졸고(2005)]에서 심신 유명론의 형이상학적 근거가 될 수 있는 4차원 개별자론을 제시하였다. 또 졸고(2001)도 참조..

14) 위의 주 13 참조.

포함해서)의 속성을 이론의존적인 술어에 의해 구성되는 언어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존재계층의 실재론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15]

나는 이런 점에서 그 동안 보편자로서의 속성 실재론이 옹호될 수 있다면 제거주의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밖에 없지만, 보편자로서의 속성 실재론이 재고될 수 있다면 심신 유명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제거주의는 다원적인 존재현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심정적으로는 우리의 직관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심신 유명론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보편자로서의 속성의 실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심리철학의 문제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형이상학의 문제이므로 이 문제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기 전에는 심정적인 선호와 상관없이 제거주의와 심신 유명론의 두 가지를 모두 가능한 선택지로 놓을 수 밖에 없었다. 다만 그 동안의 심리철학계에서는 심신 유명론이라는 입장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할만한 선택지임을 부각시켰을 뿐이었다.[16]

---

15) 『철학적 분석』의 심사위원 한 분은 심신 유명론이 정신적인 것에 관한 유명론을 인정한다면 제거주의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물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졸고(1995A), (1995B)에서 데이비슨의 이론이 제거주의와 다름을 논증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제거주의에 대한 혐오감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지나친 과학주의의 표방이라고 본다면, 심신 유명론은 제거주의와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다른 입장이라고 하겠다.

16) 최 훈(2004)은 기존의 나의 입장을 "보편자로서의 속성을 인정하면 제거주의만이 유일하게 옹호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심신 유명론의 입장을 취하면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선택지는 곤란하므로 두 번째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p. 101)는 선언지 제거법 논증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첫 번째 선택지인 제거주의가 곤란하다는 논증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나는 그 동안 심신 유명론을 심정적으로 더 선호하였을 뿐 그것을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지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 제거주의를 배제하는 논증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최 훈의 비판은 그 당시의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이후 최근에 졸고(2005)에서 4차원 개별자론으로서의 심신 유명론을 새롭게 옹호하는 논변을 시도하였다. 만약 이 논변이 성공할 수 있다면 심신 유명론을 심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논증에 의해서도 선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에 나는 보다 근본적인 형이상학의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심신 유명론이 일종의 4차원 개별자론의 형태로서 제거주의보다 더 유망한 형이상학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17] 4차원 개별자란 공간 뿐만 아니라 시간 차원에서도 개별자인 존재자를 말한다. 즉 순간순간의 무상한 존재자로서, 반복과 되풀이됨을 상정할 수 없는 시간 개별자이다. 도널드 데이비슨의 사건 개별자가 4차원 개별자의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4차원 개별자론은 고전 물리학에 비해 시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대 과학과 보다 더 잘 조화될 수 있는 존재론이다.

심신 문제를 비롯한 서양의 형이상학은 고대 이래로 실체와 속성이라는 두 범주 위에 기반하고 있다. 심신 문제를 정초지운 데카르트 역시 이 두 범주를 중심으로 사유하고 있고, 데카르트를 시작으로 서양근세철학의 뜨거운 쟁점으로 진행되었던 실체의 문제는 사실상 현대 심리철학을 위한 전주곡이었다. 그런데 물론 데카르트 등 근세철학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개념은 전혀 다르지만, 서양 형이상학 전통의 바탕이 되는 실체-속성은 정적이고 공간적인 범주이며, 동일성, 영속성의 특징을 공유한다. 이러한 실체-속성의 두 범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서양 형이상학이 합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연역적인 사유를 토대로 성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체-속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통 형이상학은 정적인 세계관으로 현대 과학의 시간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뉴튼의 고전 물리학에서도 시간은 실재하고 있지만 다른 공간적인 속성과 마찬가지로 수학에 근거한 양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역적이고 대칭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시간 개념은 수학적이고 연역적인 무한 지향의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과는 잘 어울릴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란 사실상 일방향성을 띠기 때문에 비가역성, 비대칭성을 보인다. 더구나 현대 과학

17) 이 점을 논하려는 것이 이 글의 초점은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간략하게 약술할 뿐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졸고(2005) 참조.

에서는 이미 빅뱅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엔트로피 법칙도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서 이러한 비가역적인 일상적인 시간성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다. 즉 현대 과학에서는 시공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4차원 개별자론은 이러한 시공간의 유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론이다.

이러한 4차원 개별자는 서로 다른 무상한 것으로 각각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는 개별자이기 때문에, 일반언사인 술어에 의해서는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는다. 즉 전통 형이상학에서와 같이 속성에 대응되는 방식으로 술어화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의 인식은 모종의 술어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 때의 '술어화'는 이론적 선입견에 의한 선택적 관점이 개입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동일한 하나의 개별자에 대해서 서술 주체의 인식 관점에 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술어화 방식이 있을 뿐, 이런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온전히 술어화될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글에서 거론한 '존재계층'이란 이런 4차원 개별자에 이론적 관점에 따라 술어화가 이루어진 특수과학들에 의해 계층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4차원 개별자론은 심신 문제의 경우에는 심신 유명론이 되는 것이다.

만약 4차원 개별자론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와 같이 전통적인 실체-속성의 범주를 토대로 심신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제거주의는 유망한 선택지의 하나로 남을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실체-속성 범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심신 유명론에 비해 더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거주의는 실체-속성의 세계관과 물리주의를 일관성있게 밀고나가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전의 다른 글에서 이미 논하였듯이[18] 제거주의는 실체-속성에 대한 강한 실재론을 전제로 성립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4차원 개별자론을 토대로 하는 심신 유명론과 이론적으로 대비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간단히

18) 졸고(1995B) 참조.

언급했듯이 심신 유명론의 형이상학적 토대가 되는 4차원 개별자론이 현대 과학과 보다 더 잘 호응될 수 있는 존재론이라면, 심신 유명론은 단순히 거시 현상을 반영할 수 있다는 상식적 직관에 호소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이점이 아니더라도 제거주의보다 유망한 형이상학 입장이다.

6. 맺 음 말

김재권의 배제 논변에 대한 비환원적 물리주의 진영에서의 대응으로 제기된 일반화 논변은 단순히 심신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 간의 승부를 넘어서서 심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논의의 재편성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제 심신 문제는 단순히 인간과 관련된 심리영역과 물리영역 간의 관계를 넘어서 나머지 존재계층들까지 고려하는 보다 거시적인 형이상학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로 이 글에서 제시하는 심신 유명론은 기존의 실체-속성 범주를 재고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진 존재론이다.

참 고 문 헌

백도형(1995A), “환원, 속성, 실재론” (『哲學』 제 43집 1995 봄호, 한국철학회)

_____(1995B), “제거주의와 실재론” (『哲學硏究』 제 36집 1995 봄호, 철학연구회)

_____(1995C), “심신 문제와 실재론” (『과학과 철학』 제 6집 1995 과학사상연구회 편, 통나무)

_____(1999), “사회생물학에 관한 형이상학적 검토” (『哲學』 58집, 韓國哲學會 1999 봄)

_____(2000), “김재권의 새로운 심신 동일론” (『철학적 분석』 2호, 한

국분석철학회, 2000)
_____(2001), “심신 유명론” (『哲學硏究』54집, 哲學硏究會 2001 가을)
_____(2002), “참을 수 없는 존재론의 가벼움 - 속성 이원론에 대한 비판” (『철학적 분석』2호, 한국분석철학회, 2000)
_____(2004A), “기능적 환원주의와 인과적 세계관 - 김재권과 암스트롱의 실재론” (『철학적 분석』9호, 한국분석철학회, 2004 여름)
_____(2004B), “물리주의와 보편자” (『철학적 분석』10호, 한국분석철학회, 2004 겨울)
_____(2005), “4차원 개별자론” (『철학연구』68집, 철학연구회, 2005 봄)
최 훈 (2004), “데이비드슨의 무법칙적 일원론과 백도형의 심신 유명론” (『철학적 분석』10호, 한국분석철학회, 2004 겨울)
Baker, L. (1993), “Metaphysics and Mental Causation” in : J. Heil & A. Mele(eds)(1993), *Mental Causation* (Oxford Univ. Pr.)
Burge, T. (1993), “Mind-Body Causation and Explanatory Practice” in : J. Heil & A. Mele(eds)(1993), *Mental Causation* (Oxford Univ. Pr.)
Hanson, N. R. (1958), *Patterns of Discove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il, J. (2003), *from an Ontological Point of Vie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Kim, J. (1989), “The Myth of Nonreductive Materialism” in : *Proceedings and Addresse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989
_____ (1998), *Mind in a Physical World* (MIT)
Pereboom, D. & Kornblith, H.(1991), “The Metaphysics of Irreduciblity” in: *Philosophical Studies* 63
Scriven, M. (1975), “Causation as Explanation” in : *Noûs* 9, No. 1 (1975. 3)
Van Gulick, R. (1993), “Who's in Charge Here? And Who's Doing All the Work?” in : J. Heil & A. Mele(eds)(1993), *Mental Causation* (Oxford Univ. Pr.)